

1. 말라리아 질병 개요

구 분	내 용
정의	말라리아는 열원충속(Genus <i>Plasmodium</i>)에 속하는 원충(<i>P. vivax</i>, <i>P. ovale</i>, <i>P. malariae</i>, <i>P. falciparum</i>), <i>P. knowlesi</i>)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
질병코드	- 제3급 법정감염병 - ICD-10 B50, B51, B52, B53, B54
원충	<i>Plasmodium vivax</i> (삼일열원충), <i>Plasmodium falciparum</i> (열대열원충), <i>Plasmodium malariae</i> (사일열원충), <i>Plasmodium ovale</i> (난형열원충), <i>Plasmodium knowlesi</i>(원숭이열원충)
감염원	- 열록날개모기속(<i>Anopheles</i>)에 속하는 암컷 모기에 의해 전파 * (국내) 총 6종의 열록날개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전파 능력이 확인됨
전파경로	- 열록날개모기속(genus <i>Anopheles</i>)의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전파 - 드물게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에 의해 전파 -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발생하지 않음
잠복기	- 일반적으로 7~30일 - 삼일열원충, 난형열원충의 재발은 모기에 물린 후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 발생할 수 있음
임상 증상	- 초기증상은 두통, 식욕부진, 오한과 고열이 나타나고 체온이 상승하여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남 -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남 - 중증인 경우(주로 열대열말라리아) 황달, 응고 장애, 신부전, 간부전, 쇼크, 의식 장애나 섬망, 혼수 등의 급성뇌증이 나타남 - 신속한 치료가 예후에 결정적이므로 조기진단이 중요
치사율	국내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며 사망사례는 거의 없음
진단	(확인 진단)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충체) 확인 (확인 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검체(혈액)에서 특이 항원 검출(신속진단키트 포함)
치료	- 말라리아 유형, 여행지역에 따른 내성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약제 선택 - 해외여행객의 감염된 말라리아 원충 종류와 약물 내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약제내성 열대열말라리아로 간주하고 치료할 것을 권고
환자 및 접촉자 관리	- 환자 및 접촉자 격리: 필요 없음 - 혈액격리 필요
예방	-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 기피 및 예방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 - 말라리아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치료종료 후 3년간 헌혈금지

2. 말라리아 위험지역 및 잠재적 위험지역

□ 말라리아 위험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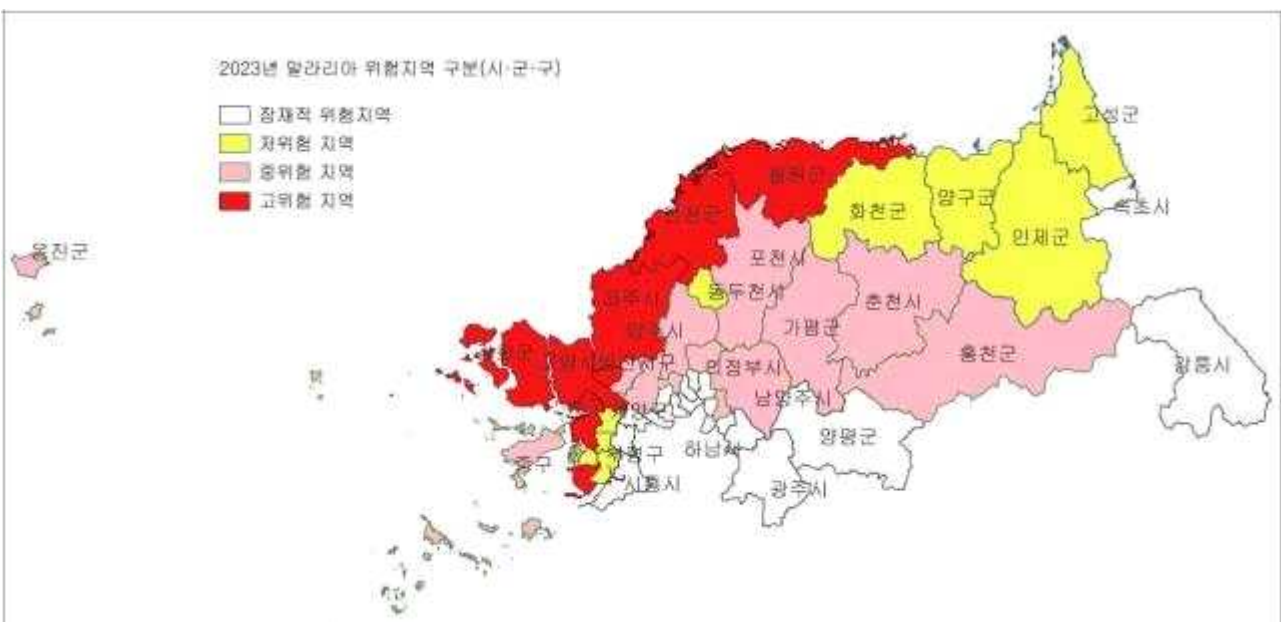
- 말라리아 퇴치사업 대상지역으로 인천, 경기·강원 북부 내 30개 시군구로 매년 환자발생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지역으로 구분

지역	분류	위험지역 시·군·구(30)
인천(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13)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7)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 말라리아 잠재적 위험지역

- 위험지역과 인접한 지역 중 최근 3년간 1건 이상 환자가 발생한 시군구

지역	분류	잠재적 위험지역 시·군·구(18)
서울(11)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동구
경기(5)		부천시, 시흥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강원(2)		속초시, 강릉시



3. 말라리아 예방수칙

- ◆ 국내에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 ~ 일출 직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
- ◆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 실천
- ◆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할 것
- ◆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
- ◆ 말라리아 경보발령지역 거주자는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신속진단키트 검사 및 예방약을 복용할 것